



마블 코믹스가 발간한 스파이더맨 만화책 페이지 한쪽이 약 40억 원에 팔렸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스파이더맨 만화책 한 페이지가 약 39억9000만 원(336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는 경매에서 판매된 만화책 페이지 중 역대 최고가다. 해당 페이지는 1984년 발간된 마블 코믹스 '시크릿 워즈 8호'의 25쪽이다. 이 만화책은 마블의 한정판 크로스 오버 시리즈로, '배틀 월드'라는 행성에서 마블 히어로들이 악당과 맞서 싸우는 내용이 그려진다. 뉴스시스

K팝 스타들 두바이 엑스포 수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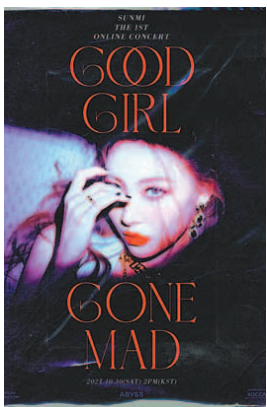
한국의 날 맞아 다양한 문화 소개
사이·선미 등 20일까지 콘서트

케이(K)팝 스타들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뒀다. '월드스타' 싸이를 필두로 스트레이 키즈, 선미, 청하, (여자)아이들, 골든차일드, 포레스텔라 등 세계무대로 활동하는 이들이 두바이에서 "케이팝의 영향력"을 과시한다. 이들은 16일부터 20일까지 현지에서 열리는 '2020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의 날, 한국주간'을 맞아 케이팝 대표주자로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한다.

16일 문화재청과 연예계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밤(한국시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이날부터 '한국주간'을 소화한다. 이 기간에 BIE(국제박람회기구) 주요 인사, 각국 정상, 각국 엑스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만큼 중동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두바이를 찾았다.

'한국주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케이팝 콘서트다.

싸이, 스트레이 키즈, 선미, 청하, (여자)아이들 등은 이날 오후 엑스포 주빌리 파



크에서 '한국의 날 콘서트'에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현지에서 대면으로 케이팝 공연이 열린 것은 감염병 사태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앨범 판매량 130만장을 넘기며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스트레이 키즈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 지난해 6월 두바이 한국관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최근 멤버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방탄소년단은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 않지만 영상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관 중정 '마당'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부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국보 1호인 승례문 앞에서 펼친 '퍼미션 투 댄스' 공연 영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정연 기자

2624억원

K팝 지난해 음반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액 전년보다 62% 이상 급증
'한한령' 뚫고 中 수출 2배 이상 ↑
일본·중국·미국·인니·대만 '톱5'
BTS·NCT 등 300만장 판매 기록

'케이(K)팝의 위력'은 기대 이상이다. 케이팝 가수들이 실력과 팬덤을 앞세워 지난해 6000만 장에 가까운 앨범을 팔아치워 음반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은 가운데 음반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팝 음반 수출액이 2624억 원(2억2083만6000달러)을 돌파해 전년 대비 6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7년 음반 수출액은 525억 원(4418만2000달러)에 그쳤지만, 2018년 766억 원(6439만9000달러)→2019년 886억 원(7459만4000달러)→2020년 1618억 원(1억3620만1000달러)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이다. 한국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한령'에도 수출액

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상승했다.

수출액으로는 일본 927억 원(7804만9000달러), 중국 505억 원(4247만1000달러), 미국 450억 원(3789만6000달러), 인도네시아 114억 원(958만3000달러) 순이었다.

이어 대만→태국→네덜란드→프랑스→홍콩→독일이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액이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은 전년 대비 151.4%나 급증해 '한한령' 등으로 갖은 제재에도 케이팝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부탄, 알제리, 벨라루스, 몰디브, 오만, 파키스탄 등지로도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액도 신기록을 세운 것은 방탄소년단과 NCT 등이 저마다 300만 장이 넘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며 국내 총 음반 판매량 5708만 9160장(가온차트 집계 기준·상위 400개)을 기록한 덕분이다.

또 감염병 사태로 대규모 콘서트 등 해외투어의 대면 공연이 장기간 불가해지면서 해외 팬들이 음반 구매로 아쉬움을 달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NCT(사진),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 그룹들의 세계적 활약에 힘입어 음반 수출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2624억원까지 치솟았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연예

스포츠동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11

연예뉴스 HOT 3

지난달 결혼한 이하늬 임신 4개월째



이하늬

지난달 두 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한 배우 이하늬가 임신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하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 현재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6월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산모와 태아의 안정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하늬는 앞서 지난달 21일 가족들만 참석한 혼인 서약식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

비, '짠돌이' 주장 유튜버에 법적대응 예고



정지훈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800억 원을 벌었음에도 후배들에게 밥을 사지 않는다'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 일부 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일부 유튜버를 비롯한 제휴포자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태민, 보충역 편입... "공황장애 악화"



태민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그룹 샤이니의 태민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로 보충역으로 변경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됐다. 소속사 S M엔터테인먼트 "이전부터 앓아온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최근 악화해 군 생활과 치료의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군의 판단과 조치에 따라 14일부터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현역으로 입대해 태민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에서 복무해왔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남성(性)들의 말 못할 고민~쉽게 바르는 남성 전용크림 화제! 재구매율이 높은 남성 전용 크림 2개 구매시 1개 추가증정

◆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 (주)비메디칼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의약품이 아닌 한방 봉독을 주성분으로 바를 수 있는 젤타임의 화장품 '한방(봉독) 크림'이 입소문으로 먼저 알려져 국내에 시판되고 있어 화제다. 위 제품은 바르는 위너(봉독)크림으로 특허(10-1813530)를 받아 전국 어디서나 전화상담 만으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위 제품으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 P&G Ventures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글로벌 스타트업 미트업 행사에도 선정 출시하였다. 사용법은 하루 2번 아침과 잠자기 전 화장하듯 희미부 중심으로 마사지하여 바르기만 하면 되고 처음 사용시 강한 느낌이니 서서히 사용량을 늘리면 좋다.



[안상원 한의학 박사의 저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조루, 발기부전, 불임으로 치료한다!']

이에 관계자는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상 수상과 봉독성분 30%를 더 높인 2022년형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선착순 300명 한도 내에서 2개(4개월) 주문시 1개(2개월) 추가 증정과 무이자 6개월 할부, 전국 무료배송, 불만족시 환불까지 해준다."고 한다

상담전화 070-7467-9831



'한방(봉독)크림'
<메리츠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억원>
(봉독성분30%UP)

종아리, 다리 걸뻘하면 쥐가 나서 밤마다 고통...기적 같은 3개월~ 누워서 발목펌프 10분이면...걷기 만보의 효과! (불만족시 환불)

◆ '누구나 쉽게 누워서 하는 이어울'

30년 넘게 합병증으로 투병하던 00씨는 한달에 7~8번씩 밤에잠 때마다 종아리부위에 쥐가 자주나고 발등과 발목 부위가 통통 부어 올라 걷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우연히 서점에서 발목펌프 운동을 알게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

사실, 발목펌프운동의 시작은 신장병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앓던 일본인이 나카키씨가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는 힘을 관찰하다 고안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펌프운동은 발목의 혈관을 두드려 줌으로써 혈관의 수축/이완을 도와 아래쪽에 모여 있는 노폐물과 정맥혈을 심장쪽으로 운반시 순환되는 원리로 몸 속에 고여있던 노폐물 정화와 피로를 풀어준다.

특히, 발 저림으로 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고생하는 분들,저녁에만 발이 시리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사용하여 각종 성인병까지 치유가된 사례가 있는 책이 출판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혈액순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고급형 '이어울'이 출시되었다.

관계자는 "기존제품과는 다르게 편하게 누워서도 사용 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과 저소음, 저진동으로 바닥울림이나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7가지 운동패턴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발목펌프운동은 하루 중

아침 공복시 및 취침 전 2~3회 정도 누워서 심장보다 높게 무릎을 펴고하면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국내생산으로 1년 무상 A/S를 보장하며 한정 특가 행사로 300분에게 7일간 무료체험 기간내에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한다.



[7단계 자동 발목펌프운동기 (무선리모컨·고급형)]
[한국 소비자 선호도1위 -히트상품 선정]

체험 문의전화 070-7434-0773